

버전관리와 GIT

생존코딩 오준석



새로운 용어가 왔어요

원격 저장소 (Remote)

물리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는 저장소입니다.

그냥 불리는 서버랑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진짜로 딱 저장용도로만 쓰거든요.

FTP 같은 고전적인 방식의 파일 저장소 도 있지만

이번에 다룰것은 **github** 에서 제공하는 원격 저장소를 사용합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든 온라인 상태라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로컬 (Local)

사용자의 개발하는 **pc** 라고 생각하면 매우 적당합니다.

사실은 원격저장소에 대응되는 현지의 저장소라는 의미로써 붙이기 나름인 뜻이지만 그냥 내 **pc** 를 로컬로 부르기로 합시다.

레포지토리 (Repository)

git 에서 지정하는 저장소의 기본 단위 입니다.

쓰다보면 이해 되겠지만

쉽게 비슷한 개념을 알려드리자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안에 폴더도 있고 파일도 있고.. 레포지토리
안에도 폴더도 있고 파일도 있습니다.

형상관리는 이 레포지트리 기반으로 관리가
됩니다.

일단 **Git** 을 설치합니다.
당연히 구글에 **git** 을 검색하는것 부터
시작입니다.

보면 윈도우는 설치파일로

다음다음다음

맥은 ... 터미널 화면에서 설치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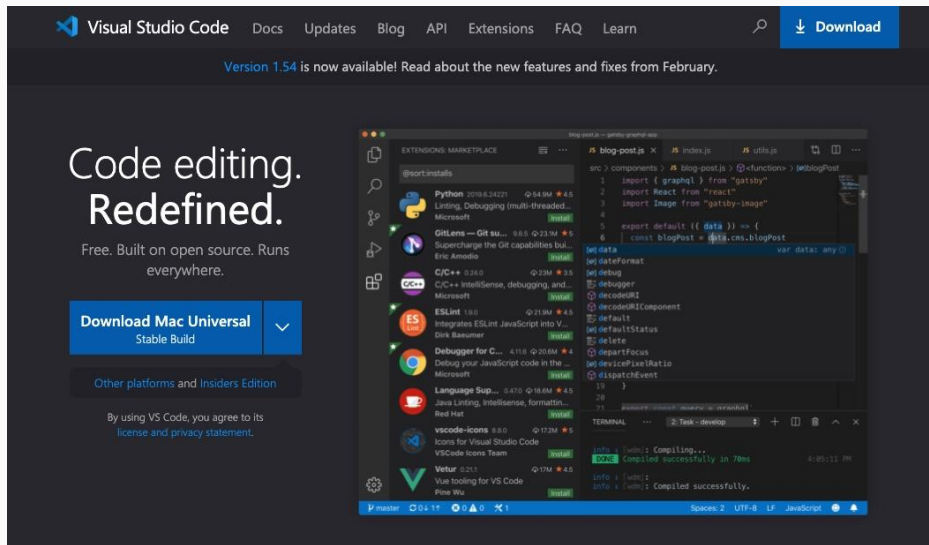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개발툴도 하나
설치해 봅시다.

단일 개발툴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visual studio code

이따가 쓸겁니다.



GitHub로 가서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볼까요?

git {명령어} {옵션} {웹주소}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로 동작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git clone

저장소의 파일을 복사해 옵니다.

프로젝트 시작때 사용합니다.

git remote

로컬 레포지트리를 원격으로 연결합니다.

clone 은 파일과 설정을 복사해 오는것

remote 는 복사해 올수도 전달할수도 있게
연결하는것 입니다.

git add

수정한 파일을 수정했고 커밋하기 전에
준비한다고 시킵니다.

그 상태를 스테이징한다 라고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git** 에게..

보통은 소스 개발할때 쓰는 프로그램들이
알아서 해줘요.

git status

수정내역이나 **commit** 대기중인 파일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려줍니다.

git 사용중에 수시로 하게 됩니다.

보통 이것도 프로그램들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git commit

로컬 레포지트리 에서 수정된 파일을 한데 묶어
놓습니다.

운송장 번호 붙여서 포장한다고 생각합시다.

git push

아까 **commit** 한 (포장한) 수정사항들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 합니다.

택배차 에게 포장된 상자를 밀어 넣는 겁니다.

git pull

git 에 저장된 내역을 받아옵니다.

이번에는 택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송장번호를 받아서 택배를 땡겨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레포지트리 둘러보기

내 레포지트리 홈페이지로
써볼까?

readme.md 를 씁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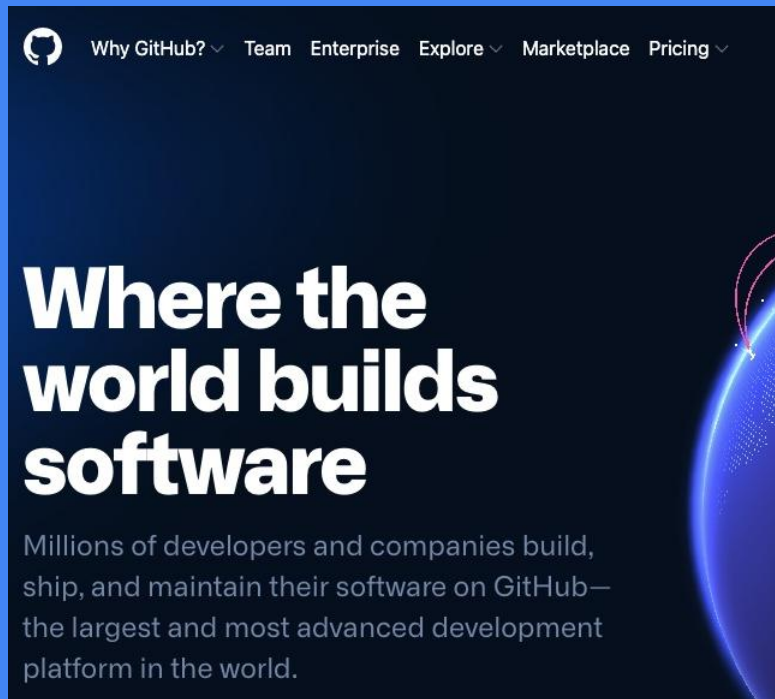
예쁘게 내 깃허브를 꾸며 볼까요?

뭐라고 검색해야 할까?

오늘 뭐 배웠지?

각자 정리 합시다.

남은 시간은 오늘의 수업 질문과
실무 관련된 질문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